

## 중국 영업세 개혁의 주요 내용 및 향후 방향

KIEP 북경사무소 (jina7@kiep.go.kr, Tel: 86-10-8497-2870)

## 차 례 ●●●

1. 영업세 개혁의 주요 내용
2. 영업세 개혁의 실시 효과
3. 영업세 개혁의 향후 전망

## 주요 내용 ●●●

- ▣ 중국은 조세제도 발전과 경제구조 조정 및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영업세 개혁인 일명 영개증(营改增)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실시함.

  - 중국은 1994년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여 증치세와 영업세를 징수하였으나, 증치세와 영업세가 병존하는 이러한 과세체계가 오히려 경제운영과 서비스업 발전 및 기업 발전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면서 영업세 개혁을 추진하게 됨.
  - 영업세 개혁은 상하이로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기업의 세부담을 적극 감소시키고, 경기부양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지역을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장쑤(江苏),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등 11개 성시(省市)로 확대함.
- ▣ 영업세 개혁은 시행 당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큰 효과를 거둠.

  - 2013년 2월 말 기준 영업세 개혁 대상업종 납세기업은 총 112만 개이고, 총 550억 위안 이상의 감세효과가 나타남.
  - 특히 상하이인 영업세 개혁의 최대 수혜자로 2012년 3차 산업이 10.6%로 증가하면서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처음으로 상하이 GDP의 60%를 초과하였음.
- ▣ 2013년 8월 1일부터 영업세 개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함.

  - 방송 영상작품 제작 및 방영 등이 대상업종에 포함되면서 2013년 기업들의 세부담이 약 1,200억 위안 감소될 것으로 추산됨.
  - 2013년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못한 건축업,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등 역시 12·5규획 기간 내에 영업세 개혁 대상업종으로 세제개혁이 진행될 것임.

# 1. 영업세 개혁의 주요 내용

■ 중국 재정부(財政部)와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 조세제도 발전과 경제구조조정 및 현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영업세 개혁, 일명 영개증(营改增)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실시함.

- 증치세와 영업세<sup>1)</sup>는 유통세로서, 중국은 경제체제와 세금징수관리 능력에 따라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수입 증대를 꾀하기 위해 1994년부터 건축업을 제외한 2차 산업에는 증치세를, 대부분의 3차 산업에는 영업세를 과세하였음.
- 그러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증치세와 영업세가 병존하는 과세체계가 오히려 경제운영과 경제구조 최적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영업세는 증치세와 달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영업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원가에 가산되어 중복과세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되면서 서비스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통상 국제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수출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나 중국은 서비스에 대해 영업세를 징수하고 있어 중국 서비스 수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3차 산업, 특히 현대서비스업의 대대적인 발전, 세계 완비, 1차·2차·3차 산업의 융합 발전 촉진, 기업세수비용 감소와 기업 발전능력 강화 등을 위해 영업세 개혁을 추진함.

■ 영업세 개혁은 서비스업이 발달하고, 개혁효과에 대한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하이(上海)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시함(표 1 참고).

- 영업세 개혁 대상업종은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으로 금융 서비스업, 부동산 건축업, 보험 서비스업, 우편통신 서비스업은 그대로 영업세가 과세됨.
- 영업세 개혁 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기업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기존 영업세 납세의무자에서 증치세 납세의무자가 되어 현행 증치세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영업세 개혁 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기업이 소규모 납세자인 경우 현행 증치세 규정에 따라 소규모 납세자 규정이 적용됨.
- 서비스 무역 수입은 국내 단계에서 증치세를 징수하고, 서비스 무역 수출은 영세율 또는 면세제도를 적용함.

---

1) 중국의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목으로 한국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구별 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중국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구별하여 재화 공급과 가공·수리 용역 공급에 대해 증치세를 과세하고 가공·수리 용역을 제외한 용역 공급에 대해 영업세를 징수하고 있음.

표 1. 영업세 개혁 대상 업종별 적용 세율

영업세 개혁 대상 업종(서비스)	증치세 세율	영업세 세율
교통운수업		
육로수송 서비스	11%	3%
수로수송 서비스		
항공수송 서비스		
파이프라인수송 서비스		
일부현대서비스업		
정보기술 서비스	6%	5%
문화창조 서비스		
물류보조 서비스 <sup>2)</sup>		
감정·컨설팅 서비스 <sup>3)</sup>		
유체동산임대 서비스	17%	

자료: 『解读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方案』(2011. 12. 27), 「上海热线」.

■ 중국정부는 기업의 세부담을 감소시키고, 경기부양을 촉진하기 위해 영업세 개혁 시범지역을 상하이 한 곳에서 11개 성시로 확대함.

- 시범지역을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장쑤(江苏),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후베이(湖北), 광둥(广东), Ningbo(宁波), 샤먼(厦门), 선전(深圳)으로 확대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함.
- 11개 성시에서 동시에 실시된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됨.
  - 베이징은 9월 1일부터, 장쑤와 안후이는 10월 1일부터, 푸젠과 광둥은 11월 1일부터, 톈진과 저장 및 후베이는 12월 1일부터 적용됨.
- 대상업종은 상하이와 마찬가지로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서비스 업종에 국한함.

### 3. 영업세 개혁 실시 효과

■ 영업세 개혁 실시 이후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기업들의 세부담이 대폭 감소하여 개혁 시행 당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큰 효과를 거둠.

- 2) 물류보조 서비스는 항공 서비스, 항구부두 서비스, 화물운송·여객운수 서비스, 인양구조 서비스, 화물운송 대리 서비스, 통관 대리수속 서비스, 저장 서비스, 하역·운반 서비스 등을 포함함.
- 3) 공증자문 서비스는 인증 서비스, 검증 서비스, 자문(재무, 조세, 법률, 내부관리, 유통과정 관리 등 정보) 서비스 등을 포함함.

- 2012년 말 기준 영업세 개혁 대상업종 납세기업이 102만 개 정도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112만 개로 증가하였고, 총 550억 위안 이상의 감세효과가 나타남.
-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财政科学研究所) 자강(贾康) 소장은 당초 개혁방안에서 제시한 목표는 영업세 개혁 대상업종 납세기업의 전체적인 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소폭 감소시킴으로써 구조 최적화를 달성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효과가 목표를 크게 초과하였다고 함.

■ 상하이에는 이번 영업세 개혁의 최대 수혜자로, 3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2012년 말 기준 상하이의 영업세 개혁 대상업종 납세기업은 총 15만 9천 개로 그중 약 90% 이상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였고, 감세 규모가 약 200억 위안에 달함.
- 2012년 상하이 지역총생산이 7.5% 성장하였고, 그중 3차 산업이 10.6% 증가하면서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처음으로 상하이 GDP의 60%를 돌파하였음.
- 전문가들은 이번 영업세 개혁이 2012년 상하이 경제성장률인 0.6%포인트를 견인하고, 1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추산함.

■ 영업세 개혁 시범지역은 물론 기타 거래지역 역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베이징은 영업세 개혁 대상업종 납세기업이 20만 개를 초과하여 총 42억 4천만 위안이 감세되면서 대상업종의 총 세부담이 33% 감소함.
- 201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둥성의 영업세 개혁 대상업종 납세기업은 12만 1,100개(선전 불포함)이며, 세부담은 6억 3,200만 위안 감소되면서 전체적으로 25.35%가 감소됨.
- 선전은 2013년 3월 20일 기준, 영업세 개혁 대상업종 납세기업이 9만 5,800개로 선전 총 납세기업의 17.7%를 차지하며, 세부담이 감소한 납세기업 수가 영업세 개혁 대상업종 총 납세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1%에 달함.
  - 납세자 유형에 따라 일반납세자 1만 8천 개 18.8%, 소규모 납세자 7만 7,800개 81.2%를 차지함.
  - 업종별로 보면 연구개발과 기술서비스 공증자문서비스와 문화창조 서비스기업의 비율이 가장 높고 각각 26.0%, 24.7%, 23.6%를 차지함.
- 대부분 영업세 개혁 대상업종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감세효과가 비시범지역에서도 나타나면서, 베이징의 경우 개혁 4개월 동안 타 도시 증치세 세부담 약 34억 위안의 감면효과를 가져왔으며 상하이의 경우 165억 3천만 위안의 감세효과를 가져옴.

■ 소규모 납세자인 중소기업과 초소형 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 감세폭이 평균 40%에 달함.

- 영업세 개혁 규정에 따라 연 매출액 500만 위안 이하인 개인과 기업은 모두 소규모 납세자로 간주하여 기존의 영업세 세율인 3~5% 적용에서 증치세 세율 3%가 적용되면서 세부담이 크게 경감됨.
- 장쑤성의 텐정경관규획설계자문회사(天正景观规划设计咨询公司)는 연 매출소득이 500만 위안 이하인 소규모기업으로 2012년 10월 시범방안이 실시된 이후 매월 1만 위안 정도의 세금이 줄어 세부담이 크게 감소함.
- 장쑤성 재세(财税)부처에 의하면 올해 1월 말 기준 영업세 개혁 시범 납세기업이 15만 개를 초과하였고, 그중 80%가 소규모 납세자이며 2012년 10~12월 동안 총 3억 5,400만 위안이 감세되었음.

■ 대부분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였지만 약 5% 정도 일부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함.

-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财经战略研究院) 재정실(财政室)의 양즈용(杨志勇) 주임은 일반 납세자 중 일부는 세부담이 증가하였지만, 통계 수치에 의하면, 12개 시범 성사에서 세부담이 증가한 기업의 비율이 지역마다 다르긴 하나 가장 높아도 10%가 되지 않으며, 이 역시도 세부담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함.
- 상하이의 경우 영업세 개혁 실시 첫 달 약 11.5%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했고, 이후 매월 감소하기 시작하여 올해 2월 말 세부담 증가 기업이 9.2%로 감소함.
- 베이징은 작년 9월 1일부터 시범 실시 이후 3개월 간 약 1만 1,100개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였지만, 4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세부담이 증가된 기업이 8,446개로 줄어들면서 영업세 개혁 대상 업종 총 기업수의 4.5%만이 부담이 상승함.
- 재정부 부장 리우지웨이(楼继伟)는 일부 기업의 세부담 증가 현상은 제도 결함이 아닌 매입세액 공제 부족과 관련된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세부담은 감소될 것이라고 함.

### 3. 영업세 개혁 향후 전망

-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2013. 4. 10)에서 영업세 개혁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함.
  - 모든 성시(省市)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함.
  - 일부 현대 서비스업의 대상업종이 방송 영상작품 제작·방영·발급으로 확대되면서 2013년 기업들의 세부담이 약 1,200억 위안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
- 철도운수업과 우편통신업 개혁안은 올해 안 또는 내년 초에 발표되며 두 업종의 특성상 적절한

시기에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고자 함.

- 철도운수와 우편통신업의 경우 경영범위가 넓고 시스템이 복잡하여 올해 8월 1일부터 증치세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시기에 통합하여 증치세를 과세하고자 함.
- 철도운수업은 제조업에 매우 중요한 교통 운수방식으로 철도운수업의 세계개혁은 제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임.
- 우편통신업의 경우 전 사회가 이용하는 업종으로 우편통신업의 세계개혁은 중국 증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제도의 완성을 의미함.

■ 2013년 영업세 개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12·5규획 기간(2011~15년) 이내에 영업세 개혁을 실시할 것임.

- 건축업,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의 경우 영업세 개혁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장 마지막 단계에 세계개혁이 실시될 가능성이 크나 이 역시 12·5규획 기간 안에 실시될 것이라고 함.
- 특히 서비스업의 주요 비용은 인건비와 임대료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 영업세 개혁이 실시된다면 일부 현대 서비스업의 세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이며, 감세 효과가 최저 현재의 3~4배에 달할 것이라고 함.
-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의 장쉐단(张学诞) 주임은 영업세 개혁 내용의 복잡성 때문에 금융업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개혁이 실시될 것이라고 함.

■ 영업세 개혁을 실시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분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증치세는 중앙정부(75%)와 지방정부(25%)가 공유하는 공유세이고, 영업세는 지방세로서 영업세가 증치세로 통합되면서 사실상 영업세가 폐지되어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므로 영업세의 증치세 통합에 의한 증치세는 전액 지방정부의 세수입에 귀속되었음.
- 그러나 재정부의 러우지웨이(楼继伟) 부장은 이 방법은 지속될 수 없으며, 영업세 개혁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모든 지역에서 시행된다면 지방세 조세체계 조정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재정수입권과 지출권에 대한 개혁을 실시할 것이라고 함. **KIEP**

## 참고자료

- 「解读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方案」, 『上海热线』, (2011年12月27日)
- 「为何要用增值税取代营业税?」, 『新华网』, (2013年2月2日)
- 「经济聚焦: 营业税改征增值税 牵一发而动全身」, 『民网-人民日报』, (2013年2月18日)
- 「营业税改征增值税部分企业税负增加怎么办 (经济聚焦·营改增效果怎么样(下))」, 『人民日报(北京)』, (2013年2月19日)
- 「营业税改征增值税扩围重点在行业全年减税预计2000亿」, 『经济观察报』, (2013年2月24日)
- 「上海营改增试点初显成效纳税人去年减负面逾90%」, 『新民晚报』, (2013年3月7日)
- 「营改增”提速财税改革——对话财政部副部长楼继伟 国税总局局长王军」, 『新华网』, (2012年4月17日)
- 「人民日报: “营改增”升级 “线路图”明晰」, 『人民日报』, (2012年4月18日)

자료 정리: 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박사과정 신금미 (nhsinny@hotmail.com)